

광주시, 지역·대학 동반성장 '라이즈 체계' 본격 가동

라이즈 시행계획 등 4개 주요안건 심의·의결...올해 882억원 투입 인재 스킬·기업밸류·대학 이노업 등 5대 업 프로젝트 수행기관 공모

광주시가 올해 총 882억원을 투입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라이즈(RISE)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2025 라이즈(RISE) 시행계획(안)' 등 4개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광주 라이즈 기본계획(2025-2029)에 따른 광주 라이즈 5대 프로젝트·16개 단위과제와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늘봄, 글로벌대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국정과제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사업 중 하나로, 기존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RIS,

LINC3.0, LiFE, HiVE, 지방대학성화 사업)을 통합하고, 예산과 권한을 지방에 위임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시는 2025년 라이즈 시행계획 '지역-대학 함께 업(UP), 교육혁신 기회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지역과 대학 공동체 가치 생성 ▲지역산업 맞춤형 정주인재 육성 ▲기업성장 산학연 컨베이어 구축 ▲알파(A)-오메가(O) 직업평생 교육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인재 스킬업(SKILL UP) 프로젝트, 기업 밸류업(VALUE UP) 프로젝트, 지역사회 그로우업(GROW UP) 프로젝트, 대학 이노업(INNO UP) 프로젝트, 범부처·초광역 브릿지업(BRIDGE UP) 프로젝트 등 '5대 UP 프로젝트'와 '16개 단위과제'를 추진한다.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10일부터 3월12일까지 '2025 광주 라이즈 사업 참여 기관 모집 공고'를 내고 대학별 사업계획서를 신청받는다. 3월 중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뒤 광주 라이즈 사업관리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광주라이즈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67여개(774억원 규모) 사업수행 기관을 확정한다.

시는 또 이날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따라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도 심의·의결했다. 지방 공사·공단, 지방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등 지역 내 114개 기관이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라이즈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라이즈는 광주만의 특장점을 살려 교육과 산업을 함께 키우는 열쇠가 될 것이다"며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순천시립삼산도서관에서 역량강화 연수중인 전남교육청 2025 독서인문선도교실 교사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교육청, 독서인문선도교실 운영교원 확대

초·중·고 교원 43명→74명

전남교육청이 교실 수업 속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독서인문선도교실 운영교원을 확대 운영한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독서인문선도교실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통합적 독서·토론·글쓰기 수업 확산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독서인문선도교실에서는 초·중·고 43명의 운영교원이 활동했다.

도 교육청은 2년 차인 올해 독서인문선도교실을 확대하고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제2기 운영교원을 초등 50명·중등 24명 총 74명으로 새롭게 꾸렸다.

독서인문선도교실 운영 교사들은 미래교육 역량 함양을 위한 독서인문교육을 목표로 올해 동안 독서, 토론, 글쓰기 수업을 진행한다. 학기별로 교내 수업공개와 시군 단위별 공개수업을 통해 혁신적인 독서인문교육 수업 모형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순천시립삼산도서관에서 중등 운영교원 대상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박준 전남도교육청 미래교육과장은 "독서인문선도교실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배움과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송원대, 서울 용산철도고 학점 선이수제 교육과정 입교식

학생 17명 철도차량 운전교육 등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는 최근 서울 용산철도고등학교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학점 선이수제 교육과정 입교식을 열었다. <사진>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해 11월 체결한 협약식에 따라 용산철도고등학교 측의 위탁 교육 요청으로 2주간 진행된다. 학점 선이수제는 고교생이 대학 입학 전에 대학 강의를 미리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다.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조기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이다.

용산철도고등학교 학생들은 송원대학교 철도아카데미에서 철도차량 운전 기초, 철도교통관제시스템 등 철도차량 운전과 철도교통관제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교육 및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최신 철도 기술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이 포함돼 향후 철도 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교식에는 송원대학교 최수태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용산철도고등학교 교직원 및 참여 학생들이 참석했다.

최수태 총장은 환영사에서 "송원대학교는 철도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산철도고등학교 관계자는 "송원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대학 수준의 전문 교육을 경험

하고,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얻게 되리라 기대"며, "앞으로도 철도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점 선이수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평가를 거쳐 학점을 인정받게 되며, 송원대학교는 앞으로도 학점 선이수제를 확대 운영하여 철도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고교-대학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관리 강화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 지원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은)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3월부터 유·초·중·고등학교 공기질을 본격 관리한다.

시교육청은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2025년 학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모니터단을 구성해 상·하반기 각 80개교, 총 160개교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미

세먼지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360여 개의 유·초·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4492대)를 지원하고, 262개교에는 7320대의 공기청정기 임차료(중복 지원 포함)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환경조성, 학교 숲 조성, 실내 공기정화식물 가꾸기 등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감군 학생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학년 초 해당 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질환별 응급조치에 필요한 마스크와 상비약을

비치하도록 했다. 유치원 유아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조건에 부합되면 질병결석을 인정하고,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

이 밖에 각 학교에 미세먼지 대응상황 점검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반발 시기 전 연 2회 자체 점검,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실외활동 자제, 공기정화장치 가동 안내, 보건용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을 안내했다.

이정은 교육감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발빠르게 대응해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임상병리학과, 사제가 함께 특허 등록

허지혜 교수·졸업생 3명...가이드 스티커 이용한 선상 도말법 개발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임상병리학과가 학생들의 연구 실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특허 등록을 사제가 함께 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동강대 창업보육센터의 창업동아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특허 등록의 결실을 맺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10일 동강대에 따르면 임상병리학과 허지혜 교수와 문가영·홍지은·김하린(2024년 전공심화과정 졸업생)씨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미생물배양 학습자들을 위한 배양접시 도말법 '선상 도말용 가이드 스티커 및 이를 이용한 선상 도말 방법'의 특허 등록을 받았다.

동강대 임상병리학과는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미생물 연구 시 학생들의 실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말 검사는 검사물을 배양접시에 얇게 펴 배양 후 배양된 미생물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도포해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방법이다. 배양접시 바깥에 배양가이드 스티커를 붙여 배양의 정확도를 높인다.

허 교수와 학생 3명은 교내의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였고 이번 특허 등록의 성과를 거뒀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 동강대 창업보육센터가 진행한 '창업동아리 아이디어 성과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2022년 2월 누구나 손쉽게 비브리오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 '비브리닥터'를 개발하고 특허 출원을 했다.

당시 특허 출원은 학생과 교수 뿐 아니라 가족회사인 센피스까지 산업체가 함께 기술개발에 나서 화제를 모았다.

여기에 2022년 8월 한국광기술원에서 실시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산·학·연 상생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도 선정됐다.

허지혜 교수는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한 미생물 검사 실습에서 검체를 배양접시에 정확하게 펼쳐 배양함으로써 검사의 정확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학생들과 함께 개발해 뜻 깊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